

문학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21.07.06

이 지 민

개요

주제

문학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1. 문학이란 무엇인가

II. 본론

2.1 현대 사회의 특징

2.2 현대 사회에서의 문학의 필요성

2.3 현대 사회 속 문학의 표현

III. 결론

3. 현대사회에서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시대를 불문하고 수도없이 제기되어 왔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을 한 글자로 정의하기엔 어려운 듯하다. 문학의 사전적 정의는 ‘명사;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가 있다.’¹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그저 문학이라는 단어의 정의일 뿐, 문학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학자들과 문학자들이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위 주제에 대한 명확하고 완벽한 답변은 얻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문학은 굉장히 포괄적이며 문학에 대한 정의는 시대상, 장소, 작가의 세계관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예술이다. 다만 언어를 재료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인간에 대해 묘사하는 예술이다. 언어를 표현의 매체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예술과 구별되고,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언어의 다른 영역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문학에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과 희노애락이 담겨 있으며, 현실을 벗어난 꿈에 대한 동경이 담겨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가가 본인의 경험으로 인해 깨닫게 된 사실을, 언어를 통하여 산출한, 예술적 표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문학은 ‘삶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학에서 나타내는 세계는 실제와 완전히 구별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유추된 세계, 즉, 현실 세계를 재현 또는 재창조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문학 작품 속에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삶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져야 한다는 이상적인 당위의 측면으로 인식하게끔 한다.

¹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24391&searchKeywordTo=3

그만큼 문학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뫼퐁』은 문학이 사회의 거울이라고 말했듯이, 문학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그 속에 현실 세계에 대한 풍자와 사회적인 이념, 작가의 인생관을 응축시켜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 작품의 감상을 통해 현실 세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으며, 자신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명작이라 일컬어지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심미적 감동을 맛보는 동시에 교훈도 얻는다. 우리나라의 홍길동전, 전우치전, 서양의 일리아드, 오딧세이 등의 고전문학을 통해 작품 속에 담긴 교훈을 통달하고 인생에 적용하며 사상적으로 깊이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며, 작품에 함유되어있는 아름다움을 통해 정서적 감동 및 쾌락, 안정 또한 찾을 수 있다.

또한, 문학에는 사회 고발의 기능이 있다. 문학은 사회의 모순성, 소외계층의 힘겨운 삶, 상처를 입은 시대,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 등 작가의 예리한 시선과 통찰로 사회의 어두운 면 또는 부정적인 면을 알리는 기능을 지녔다. 우리나라의 소설 중 상당수가 사회 고발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예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에 크게 기여한 1970년대의 산업화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며 비인간적인 속성을 알렸던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문학의 사회적 역할 가운데 가장 큰 기능일 것이다. 반면, 저속하고 저급한 문학은 독자들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음란물에 가까운 선정적인 작품들이 예술이란 이름으로 범람할 때, 이성적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그들은 잘못된 성 지식을 갖게 된다. 이처럼 불건전한 글들은 각종 사회문제와 성적 타락을 불러 오게 된다. 이렇기에 문학은 대중에게 올바른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에게 문학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의 문학의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짚어보며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현대 사회의 특징

현대 사회에서의 문학의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 알고있어야 한다. 공업화와 산업화로 인한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라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 혼돈을 야기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대의 산업 사회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시작은 산업 혁명이었다. 농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산업혁명은, 거대한 규모의 공장에서 기계화된 상품 생산을 이룸으로써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자본을 안겨주었다.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합리적인 가치가 확산되었으며, 농민들 중 상당수가 도시로 유입되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산업 사회가 발전하며 시작된 후기 산업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이다.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는 크게 네 가지; 공업화, 조직의 체계화, 대중 사회화 정보화를 들 수가 있다.

공업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생산활동에 응용되어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주었다. 또한, 공업화는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의 분화와 전문화, 중산층의 확대에 의한 정치 수준 향상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업화로 인하여 자연 환경이 파괴되며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또한, 기계화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의 체계화 조직의 성장은 자연스레 체계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른 분업화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중 교육의 등장으로 인해 숙련공과 전문인 양성에 힘 쓰게 되었다.

대중 사회화 개인 주의의 확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대중 사회화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인격적, 정서적 유대가 단절됨으로서 하나 하나의 개인들이 고립되어 가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이다. 이는 리스만이 주장한 ‘고독한 군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는 하지만, 옛날과 같이 정서적으로 맺어진 유대감을 갖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고 있다’고 현대 사회를 정의한 리스만의 ‘고독한 군중’²은, 대중 사회화의 개인주의적 면모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뒷받침해주는 주장이다.

정보화 정보화 시대(情報化時代, information age)는 정보로 가공된 지식과 자료 따위가 사회 구조나 습관, 인간의 가치관 따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가리킨다.³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의 원천을 이룬다.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경제 활동의 공간제약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발달이 촉진되기 마련이기에,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⁴ 또한,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대량 생산 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전문직, 기술직, 연구원 등 지식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²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8F%85%ED%95%9C_%EA%B5%B0%EC%A4%91

³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B%B3%B4%ED%99%94%EC%8B%9C%EB%8C%80>

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3%EC%B0%A8_%EC%82%B0%EC%97%85

2.2 현대 사회에서의 문학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한 현대사회의 네 가지 특징들에 의해 미디어라는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하기 바쁘다.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변되며, 과학기술에 의해 인간의 생활방식 및 가치관이 지배 당하는 사회이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고착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항시 변화한다. 어제의 연속인 동시에 내일로 이어지는 중간지점인 ‘현대’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것이며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의 문학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문학으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듯하다. 현대사회에서 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작은 액정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는 현대인들은 자연스레 점점 책과 멀어져만 간다. 또한,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정작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한다. 바쁜 일상 속 구태여 문학을 찾지 않는 다수의 현대인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갈등의 주된 원인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만 사로잡혀 타인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면, 타인과 소통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문학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줌과 동시에 타인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주고 작품 속 인물의 감정에 몰입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 해준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독자의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작품의 예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김 첩지’의 삶을 통해 가난한 삶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소설은 우리로 하여금 당시의 시대상에 나타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사고를 허락한다.

또한, 대중 사회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성의 결핍을 겪고있는 우리에게 문학은 공동체적 역동성을 증진시킨다. 사람은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성향이 다르기 마련이다. 이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단절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문학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더 소중한 가치를 향해 원만히 통합되어가는 상태를 보여준다. 문학은 삶의 문제를 그리는 과정이기에 사회라는 캔버스에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장 잘 그려내는 붓이 된다. 문학은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모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에 개개인의 고립이 심해져가는 현대사회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2.3 현대 사회 속 문학의 표현

현대 사회에서 문학 작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된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자 외의 여러 매체가 등장했다. 통신과 방송의 발달은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등장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는 문자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서도 인간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는 문자와 그림, 동영상 등을 결합함으로써 심미적 요소를 첨가하여 문학 작품의 요소들을 더욱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영화와 TV 같은 영상 매체가 활성화 된 오늘 날, 문학은 콘텐츠와 접목되어 ‘문화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문학은 문자를 넘어서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전자 매체를 활용한 문학 활동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이점 또한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문학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연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곧 문화발달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며, 문화 발달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매체 환경의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매체의 다양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문학의 생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현대 사회에서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현대 사회에서의 문학의 필요성과 문학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학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문학은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한다. 작가는 자신의 사상과 취향에 따라 소재를 선별하며 내용을 구상한다. 작가의 사상과 취향은 작가가 소재를 선택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독자의 취향과 당대의 사회 분위기, 혹은 검열과 같은 통제 등이 개입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따라서 문학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이 지닌 사회적 성향을 외면할 수 없다. 문학은 그 배경이 되는 사회에서 생성된다. 문학이 갖고 있는 전파력과 영향력은 곧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기도 하다. 발달하는 정보 매체를 이용, 그 유용성을 확대해 나간다면 올바른 사회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학은 어떠한 형태로든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하여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기여해야 한다. 심미적인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채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문학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때 문학은 시대의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